

연재 소설 **라라의 랩소디**

글 맹세희



<3> 모스크바에 봄은 오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구약성서-

다음날 아침에 모닝 차를 가져다준 이 선생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거리는 혁명 지도자 레닌의 본명, 울리아노프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두 분은 이 거리에서 모스크바 첫 밤을 보낸 겁니다. 여기는 흐루쇼프가 전후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단기간에 건축된 저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 거리의 낡은 분위기는 그 때문일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흐루쇼프가 중 하나죠.”

한국에서 흐루시초프라고 부르는 소련 서기장을 이 선생은 흐루쇼프라고 말하고 있었다.

“러시아어로 쓰면 그렇게 발음되죠. 흐루쇼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만..”

고려인 이 선생은 그렇게 친절히 설명을 덧붙였다.

“제가 아는 바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역사의 원조라고 한 다죠.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된 나라여서.”

이 선생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라라를 쳐다보았다.

“오, 러시아에 대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요?”

친절한 인텔리 고려인 이 선생을 만난 게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그는 모스크바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었다. 길 가다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일단은 서라.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팔고 있을 거다. 외국인들에게 값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물건이 귀한 때이니 보일 때 사 두는 것이 좋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부터 역사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이 선생의 자상함과 해박함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이었다.

준호와의 모스크바 첫날은 세레메체보 공항에서 낯선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초조한 낮과 한 평 쪽방에서의 난감한 밤뿐이었다. 라라의 초야, 첫날 밤은 없었다. 물론 신데렐라의 마법의 밤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 모스크바 초야는 라라에게 전준호가 완벽한 타인이 될 전조였는지 모른다. 누구도 죄가 없다. 유죄라면 단지 모스크바가 백아였을 뿐, 밤이 없었을 뿐이니까.

8년 후, 1999년 모스크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첫날 아침, 라라는 크레믈린 궁과 멀지 않은 트베르스카야 거리의 메리어트 호텔로 가고 있었다. 이미 계절은 5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봄처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여섯 달 동안의 긴 겨울 후, 조금씩 봄이 감촉이 느껴진다. 모스크바는 4월이 되어야 겨우내 쌓였던 하얀 눈이 녹아 진흙 빛으로 도심과 교외를 흐른다. 백색의 소금처럼 얼어붙었던 겨울 눈은 검은 강물이 되어 거리에 흘러 넘친다.

그 눈 속에서 이미 씩씩 튀은 민들레가 하얀 눈꽃을 대신해서 노란 꽃비인 양 떨어 내리고 있다.

민들레를 뺨뺨한 듯 수줍은 듯 차지한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붓으로 채색이라도 한 듯 청순했던 대지는 노란 화사함으로 탈바꿈한다.

라라는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노란은 '질투'를 상징한다고 어느 책에 읽었기 때문이다.

“질투, 그것은 너무나 비열하고 저열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야 마는 악성 열병이야. 질투는 미개한 사람들의 저급한 감정이야.”

라라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공부 좀 하는, 소위 모범생 여자가 흔히 그렇듯, 남자에게한테 지는 것을 죽어라 싫어했던 선머슴아 기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여자도 능력이 있고 강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던 부모님 때문이었는지, 페미니스트 기질이 강했던 그녀의 소녀적 감수성이 질투심을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레도 모스크바 민들레의 노란색이 싫지 않은 건, 단지 그것이 6개월간 이어지는 길고 추운 모스크바 겨울의 끝을 전하러 달려온 봄의 전령이라는 기특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공 물감과 다르게, 천연 노란 빛은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AI 생성 이미지

“추상아 역할에 깊이 빠져 엄마도 제 표정 무섭대요”

ENA 드라마 '클라이맥스' 주연 하지원

“촬영 기간 추상아 역할에 깊이 빠져 들었어요. 추상아가 거식증처럼 음식을 못 먹는 순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 기간에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죠.”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만난 배우 하지원은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 추상아를 연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원은 “감독님이 추상아에게서 평상시 '하지원'의 말투나 웃음이 나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셨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제 본모습이 보이면 무조건 다시 찍었다”며 “추상아가 워낙 어려운 캐릭터이고 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저도 같이 겪다 보니,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돌아봤다.

'클라이맥스'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는 검사 방태섭(주지훈 분)과 그의 아내 추상아(하지원)의 치열한 생존 과정을 통해 정재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파헤치는 스릴러 드라마다.

극 중 하지원은 화려한 정상의 삶을 살다 추락한 톱배우 추상아 역할을 맡아 선과 악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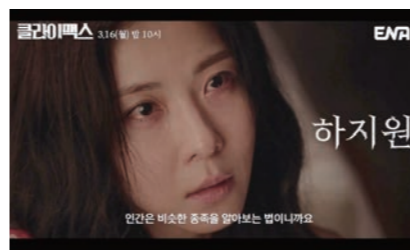
데뷔 30년 차에 또 한번 과격적인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저희 엄마도 드라마 속 제 표정을 보며 무섭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농담 삼아 '하지원 이가 화날 일 안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주변 반응을 전했다.

추상아의 날 선 예민함을 표현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고충도 만만치 않았다. 얇은 슬림 드레스를 소화하기 위해 평소 몸무게에서 5kg를 감량했다는 그는 “워낙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라 걷지도 않고 스트레칭만 하며 근육을 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과거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스폰서 이슈, 동성애 등 자극적이거나 높은 수위의 소재를 다루어

추락한 톱스타 역할 맡아 열연 근육까지 빼 몸무게 5kg 감량 내 말투와 웃음 지우며 연기

나나와 키스, 너무 잘 어울려 살인 사주 장면 최고 난코스 주지훈과 로맨스 연기하고파



ENA 드라마 '클라이맥스' ENA

했다.

하지원은 “(구체적인 사건) 권력을 향한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 각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집중하려고 했다”며 “동성애 연기 역시 단순히 '동성'이라는 틀보다는 추상아라는 불안정한 존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은 극 중 황정원 역할을 맡은 배우 나나와의 동성 키스 장면이었다.

하지원은 “나나 씨가 워낙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편이라 키스신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었다”며 “상아와 정원이 서로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모니터링을 보니 그림이 너무 잘 어울렸다”고 돌아봤다.

그는 촬영 중 가장 힘들었던 장면으로 자신의 경호원인 박재상(이가섭)에게 거짓 사랑을 고백하며, 소속사 대표 오광재(서현우)에 대한 살인을 사주하는 장면을 꼽았다.

“박재상도 속이고, 시청자도 속여야 해서 이 장면이 정말 힘들었어요. 상아의 속내가 시청자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가며 찍었죠.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하지원은 추상아의 행동을 선악으로 구분 짓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제가 분석한 추상아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점점 변해가는 것도 모두 '생존'이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추상아의 대사 중 '나는 시들어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나야'라는 말이 그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때론 대본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느껴진 순간도 있었지만, 그가 하는 선택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원은 극 중 상대역이었던 주지훈과

의 연기 호흡도 자랑했다.

그는 “이번 작품으로 지훈씨와 처음 만났는데, 서로 호흡이 너무 잘 맞았다”며 “몸으로 싸우는 어려운 액션 장면도 있었는데, 리허설도 없이 몇 테이크 만에 찍었다”고 했다.

다만 극 중 방태섭과 추상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욕망 때문에 결혼하게 된 관계”라며 “방태섭과 추상아의 사랑을 기대하는 팬들도 있는데, 다음 작품에서 주지훈과 다시 (로맨스를 연기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내주 종영을 앞둔 '클라이맥스'에 대해 하지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매 신이 클라이맥스처럼 팽팽하게 흘러가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후반부에 이양미(차주영)와 말로만 칼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자신했다. 연립뉴스



배우 하지원, 해외달엔터테인먼트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